

함라마을 부농주거의 건축특성 연구

The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ealthy Farmhouses in Ham-Ra

유은미*
Yu, Eun-Mi

홍승재**
Hong, Seung-Jae

Abstract

Ham-ra is a village that belongs to Ham-yuel Ri, Ik-san city and also known as the village where 4 millionaire modern age rich farmer households are residing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Originally, central point of the village was Gaeksa and Hyanggyo that is in Suodong, but early 1900s, rich farmers found new places beside Suodong and built large-scale houses and around it, houses of tenant and commercial places were formed and became the new center of the village. Therefore, Ham-ra village shows well about the changes of the traditional village in the end of Chosun Dynasty aspect that of existent village space according to rich farmer's growth. Especially, the large scaled Korean traditional houses which were built newly in the year between 1917 to 1939 shows main road and Natural stream surrounding the village which are not found in any other village. 3 rich farmers (Lee Bae-won, Jo Hae-young, Kim An-gyun house) and Lee Jib-cheon's houses built a large scaled Sarang-chae and An-chae to compete and to show off there wealth. This residing imitated High-classe house yet accommodated social changes and through a voluntary experiment, is expressing modernity of Han-ok very well. Similarity and creativity in residing form appears well in buildings similar time and village. This research analyzed space composition change of the village and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e who appear at modern process of typical farmer houses which make a strong resolution to Ham-ra hereupon.

Keywords : Villages in Ham-Ra, space composition, modern wealthy farmhouses

주요어 : 함라마을, 공간구성, 근대 부농주거

I. 서론

함라마을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 위치하며 관아와 객사가 있던 함열현의 읍치였다. 이 마을은 관아와 객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마을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그 기능이 상실되면서 마을의 공간구성이 변화되었다. 특히 근대기 새롭게 등장하는 부농의 활발한 건축 활동과 주거영역의 확장으로 마을 공간구조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공간질서를 갖추게 되었다.

마을의 입구에는 부농주거 4가옥이 밀집하여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농업과 기업 활동을 통하여 급성장한 부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였다. 1917년 이배원가옥을 시작으로 1918년에 조해영가옥, 1922년 김안균가옥, 1930년대 이집천가옥 순으로 짧은 시기 안에 경쟁적으로 건축되었다. 이들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

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개화기 우리나라 전통주거의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택은 근접한 시기에 건축되면서 주거형태에 있어서 유사성이 나타나는 동시에 각각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함라마을의 대표적인 부농가옥을 중심으로 전통주거 위에 근대적 요소의 결합방법과 그의 변용을 파악하여 함라마을 부농주거의 건축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고문헌과 고지도 등을 통하여 마을의 유래와 공간구성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근대기 자료인 신문·잡지 등을 바탕으로 이배원·조해영·김안균·이집천의 활동경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집주인 및 마을 주민의 증언과 실측을 통하여 근대 이후 가세가 기울면서 각 채가 따로 매각되거나 철거된 가옥의 원형을 추정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주거의 공간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마을의 공간구조와 부농주거

1. 조선시대 함라마을의 공간구성

함라마을은 본래 조선시대 읍치로써 중요 시설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현의 중심부였다¹⁾. 관아와 객사를 중

*정회원(주저자), 원광대 대학원 석사

**정회원, 원광대 건축학부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5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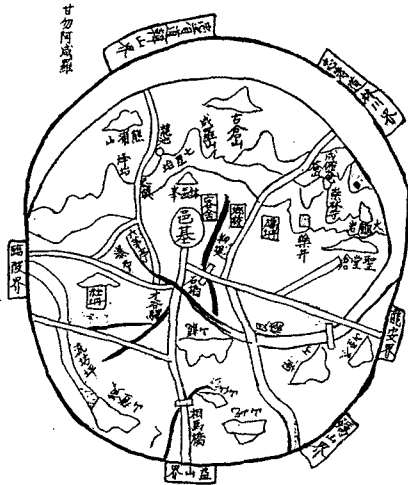


그림 1. 함열산천도

심으로 마을이 구성되었으며 자치 구성된 마을의 노소와 함께 마을의 규율을 다스렸다. 이러한 마을의 구성은 허균이 쓴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의 ‘함열현 객사 대청 중건기’와 1872년에 제작된 함열현 지방도 그리고 1905년에 작성된 함열현읍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기록들로 볼 때 함라마은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읍치로써 관사를 중심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민가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의 중심시설로는 동헌을 비롯한 관아와 객사, 향교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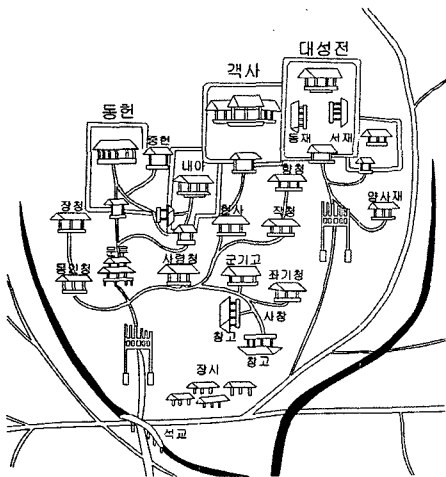


그림 2. 관아의 배치와 명칭 (1872년 함열현 지방도를 바탕으로 작도)

- 1) 함라마은은 함라산이 병풍처럼 지형을 감싸고 있는 명당지이며, 마을에는 안정·수동·교동천의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으로 읍치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2) 함라마은의 노소는 1682년 발족되어 자치 규범인 읍강법을 세워 상하분별 못하는자, 불효한 자, 게으른 자들을 다스렸다.
- 3) ‘함열의 고을됨이 외떨어져 호남의 바닷가에 있다. 땅은 사방이 모두 20리가 채 못되고, 백성은 가난하여 저축이 없으며, 또한 큰 산이 없어 편남과 예장같은 좋은 재목이 없다. 그러므로 관사가 낮고 비좁으며 민가는 대개 떠로써 지었다.... 이하생략

표 1. 관아의 구성

관청	구성
동헌	상방3칸, 대청3칸, 전퇴2칸, 통인방1칸, 중삼문3칸, 하청1칸, 곳집3칸, 창방3칸, 부엌2칸
내아	상방1칸반, 월방1칸반, 대청3칸, 누헌2칸, 부엌2칸
책실	상방3칸, 대청3칸
향청	대청6칸, 좌·우방 6칸, 대문3칸, 행각4칸, 장청5칸
객사	대청6칸, 동대청6칸, 서대청6칸, 중삼문3칸, 외삼문3칸, 직처소2칸
작청	대청6칸, 동방3칸, 서방3칸, 대문3칸, 좌우행각 5칸반
형리청	대청6칸, 좌우방6칸, 하청6칸
사령방	대청5칸, 좌우 방6칸, 하청6칸, 구유간3칸

객사를 중심으로 좌측엔 동헌, 우측엔 향교가 있다. 동헌과 향교는 각각의 홍살문을 통해 진입하며, 동헌의 주위에는 중헌, 내아 등 치정 관련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객사의 아래에는 향청, 작청, 현사 등 관리들의 처소와 군기고, 좌기청, 창고 등 군부에 관련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함라마에는 이러한 교육·정치 시설 외에도 세미(稅米)를 보관하고 운송하는 시설들이 강을 따라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포구는 남당진과 응포진이 있었고 창고는 성당창과 해창이 있었다. 이러한 포구들과 창고들은 배를 통한 상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부농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부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2. 일제강점기 공간구조의 변화와 요인

일제강점기 함라마은은 익산군에 병합되었으며 기존의 함열현의 관아들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마을의 중심부가 해체되었다. 1909년 가장 처음 마을 입구인 449번지에 일제의 탄압시설인 경찰 주재소가 설립되었고, 그 후 1910년에 함열우편소, 1914년에 면사무소가 설립되었다. 함열우편소와 면사무소는 기존의 관청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새로 건축하였다. 그 후 부농들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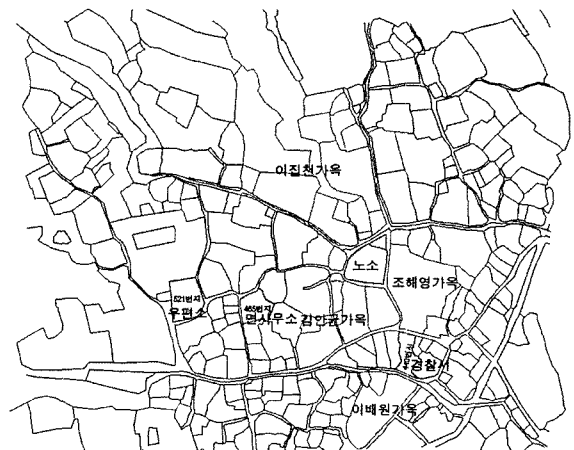


그림 3. 일제강점기 함라마을을 부농주거와 관공서 위치

주변에 대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상권이 더욱 확대되었고 근대시기 마을 생활의 새로운 중심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 이후 1920년대 개통된 호남선이 합라 부농들의 반대로 현재의 함열면 와리에 역이 생기면서 발전이 늦어졌고 한편 아편 중독⁴⁾으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을 잃고 이주하면서 점차 마을이 쇠락되었다. 또한 1950년대 진행된 토지개혁으로 세 부호가 몰락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부농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구심이 해체되었고 면사무소와 우체국 등의 관공서들이 신작로 변으로 이동하면서 그를 따라 상권도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합라마을은 조선시대 익산 행정의 중심지에서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에 거치면서 점차 중심지기능을 쇠퇴하였으며 부농의 성쇠는 마을의 전반적인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3. 부농의 정착과 주거 신축

합라마을의 대표적인 부농 중 가장 먼저 정착한 가옥은 조씨가이다. 이들은 합라에 씨족을 이루었으며, 그 후 김안균의 6대 조부인 김원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배원의 아버지인 이석순이 차례로 입향하였다. 진사를 지낸 김안균가옥을 제외하고 모두 농업과 상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들 모두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하였다. 조씨는 가옥 인근에 조용규농장⁵⁾을 설립하였고, 이씨는 삼성농장, 김씨는 함화농장을 함열역 앞에 설립하였다⁶⁾. 이들은 이러한 농장 운영 외에도 전북축산,



그림 4. 영역의 경계와 확장

4) 1921.6.12 동아일보, 아편중독의 함열지방
 5) 조용규농장은 합라면에 위치한 일본인 關宗一郎의 관농장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한 농장이었다. 참고로 관농장은 논46.6정, 밭 38.6정, 임야81.9정으로 총 166.1정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6) 삼성농장과 함화농장은 서로 인근하고 있어 각각 뒷농장과 앞농장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표 2. 부농의 정착과 경제활동

	조해영 가(家)	김안균 가(家)	이배원 가(家)
정착	본래 씨족마을	김원공 (김안균의 6대 조부)	
부의 확장	조한기(4대 조부) -1833년생 -정읍군수	김기형(4대 조부) 조선후기 효자 고종 때 정려를 하사받음 운봉현감 지냄	이석순(父) 1849년생 누룩장사, 선박을 이용하여 상업 자산사업
		김석중(3대 조부) 1903년 사망 한학자 진사, 통정대부	
기업 활동	조용규 1888년생 조농장 운영 대륙호모공업 대주주	김병순 1894년생 함화농장 운영 전북축산 감사/대주주	이배원 1881년생 삼성농장 운영 전북축산 대주주 황등산업 이사
	조해영 1908년생 호남산업 이사/ 대주주 조선수출공예 이사	김배균 (김병순의 장자) 황등산업 이사 대평건물 감사	이집천 (이배원의 장자) 1900년생 교육 사업가 서예가

호남산업 등의 기업 운영에도 참여하면서 부를 빠르게 확장하였다.

이처럼 농장과 기업활동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주택을 차례로 건축하였다. 합라마을의 대표적인 부농가인 이배원, 조해영, 김안균가옥은 각각 1917년, 1918년, 1922년의 짧은 시기에 건축되었으며, 이집천가옥은 1930년대에 지어졌다. 이들은 각기 천의 경계에 따라 천남, 안정, 천북, 수동에 위치하였고, 부농주거를 단위로 마을의 주거영역이 형성되었다.

표3. 농장의 설립과 규모

농장명	조용규농장	삼성농장	함화농장	
농장주	조용규	이배원	김병순	
설립일	1923년 5월	1925년 11월	1926년 9월	
사무소	합라면 함열리	함열면 와리	함열면 와리	
토지 소재지	익산, 옥구	익산, 옥구	익산, 옥구, 김제	
소유경지 (町)	답	188.5	-	543
	전	9.7	-	20
	대	1.2	-	
	임야	77	-	
	계	273.4	-	563
소작인수	540	-	1,088	
사원 (人)	직원	-	-	3
	사음	12	-	19

III. 주거별 건축현황과 원형추정

1. 이배원가옥

이배원가옥은 1917년 이석순이 정착하여 누룩을 제조·판매하던 초가 옆에 안채와 사랑채를 건립하였다. 안채와 사랑채는 나란히 남동향을 하여 배치하였고, 그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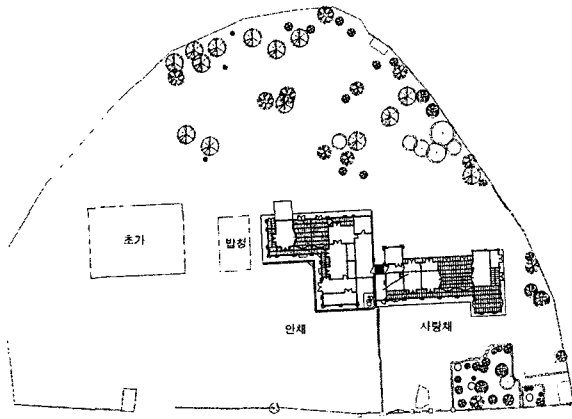


그림 5. 이배원가옥 배치도

는 내담으로 구획하였다. 담 중간에는 중문을 두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 담 끝에는 복도를 두어 동선을 연결하였다. 그러나 1959년 사랑채를 원불교가 매입하여 교당으로 사용되면서 안채와 분리되어 현재와 같이 구분되었다. 대문간채는 사랑채 전면에 있었고 그 좌우로 행랑채와 곳간채가 안채까지 이어져 있었다. 또한 안채와 초가 사이에는 일꾼들의 식사공간인 밥청이 별도로 있었으며, 초가의 전면에는 솟을대문채가 따로 있었다. 이는 추후 안채와 사랑채 건립시 초가의 지붕을 기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함께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만이 남아 있다.

2. 조해영가옥

조해영가옥은 이배원가옥이 건립된 지 1년 뒤인 1918년에 조용규가 건축하였다. 이 가옥은 열두 대문집이라 불릴 만큼 많은 문과 채가 있었으며, 농장에 관련된 시설들을 다수 건축하였다. 또한 사랑채를 중심으로 안채영역과 농장영역 그리고 일꾼영역으로 나뉘며 기능에 맞게 채들이 분산되어 배치되었다. 서쪽의 대문간채⁸⁾와 사랑채가 마주보고 있으며, 안채, 동쪽채, 사당, 새방채와 그에 이어진 고향채는 사랑채 우측의 내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좌측으로는 양옥사랑과 농장사랑, 창고, 중문간채가 있으며 그 너머로는 새집채와 초가, 방앗간 등이 있었다. 양옥사랑은 1920년대 건축되어 식객과 농감들의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농장사랑은 조해영의 농장사무실로 1937년에 건축되었다. 농장사랑의 동쪽에는 곡식의 탈곡을 위한 농장사랑⁹⁾과 채진, 미나리장이 있었고 수확물의 저장을 위한 창고들이 있었다.

현재 조해영가옥은 많은 채들이 멸실되었으며,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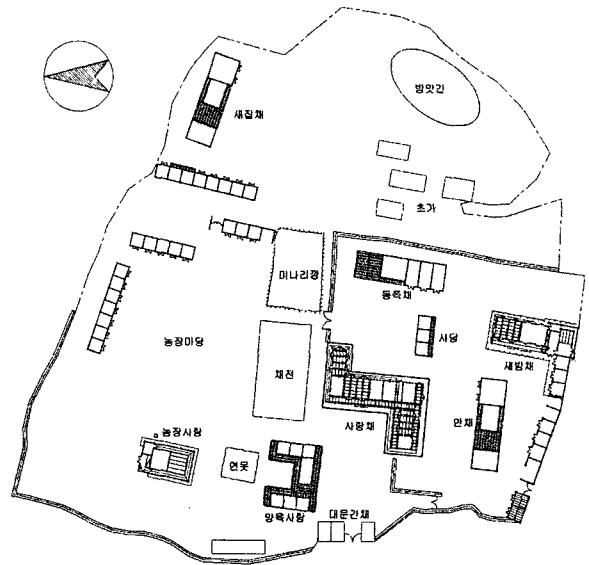


그림 6. 조해영가옥 배치도(추정)

표 4. 조해영가옥 건립연도 및 특징

가옥명	건립연도	구성 및 특징
사랑채	1918	월방채, 큰사랑채, 침방채로 구분해서 사용
안채	1918	방, 대청, 두 칸 방, 부엌으로 구성
양옥사랑	1920년대	관벽, 유리 미서기문, 일식 건축 형식
새방채	1933	도로변에 면한 한쪽 공간을 상가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
농장사랑	1937	일식건축

와 새방채, 고향채 그리고 농장사랑만이 남아 있다.

3. 김안균가옥

김안균가옥은 김안균의 부친인 김병순이 1922년 수동천을 따라 안채와 사랑채를 건립하였다. 외부에서는 길과 천을 따라 행랑채가 길게 이어지며 그 끝에는 고향채 하사받은 4대 조부 김기형의 정려비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이배원가옥과 같이 내담으로 영역이 뚜렷하게 구획하였으나 후면의 복도를 통하여 동선을 연결하였다. 사랑채 후면에는 연못을 두고 정원을 조성¹⁰⁾하였고 전면에는 대문간채와 이어진 행랑채가 마주하고 있다. 안채는 전면에 실광이 가로막고 있어 외부에서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안채 아래에는 식모가 거거하는 뜰아래채와 그에 이어진 창고를 두었다. 부엌의 전면에는 밥청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소실되었다. 또한 안채의 측면과 후면에는 창고가 있었으나 후면의 창고는 소실되었고, 창고 사이의 넓은 공간은 농작물의 타작하고 과실수 등을 심어 실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가옥은 함라마을의 부농가옥중 가장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부재 하나하나에 드러난 공력이 돋보이는 집이다.

10) 현재 사랑채 앞의 정원은 훗날 김안균이 새로 조성한 것이다.

7) 1959년에 매입하여, 1964년에 수리비 13만 8천원을 들여 지금과 같이 개조하였다.

8) 서쪽에 문을 내면 가문이 반창한다는 풍수가의 말에 따라 현재의 출입구와는 반대로 대문을 내었다고 한다.

9) 농장사랑은 곡식의 탈곡작업 외에도 함열현 세곡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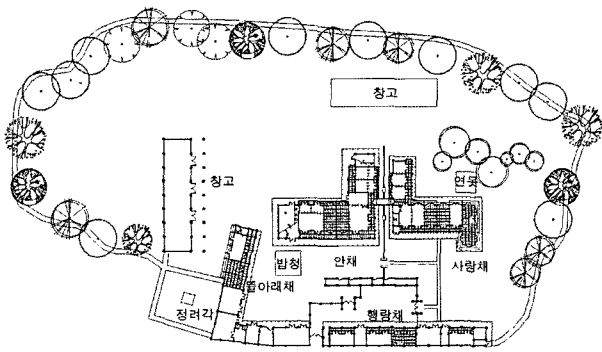


그림 7. 김안균가옥 배치도(추정)

4. 이집천가옥

이 가옥은 이배원의 장자인 이집천이 1930년대 중반 건축한 것이다. 본래 별장의 용도로 건립되었으며, 공사기간이 4년, 비용이 200여 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공을 들여 건축하였다. 목재는 압록강에서 공수하여 대들보를 올렸고, 정원석은 제주도에서 가져왔으며, 기단과 층계는 모두 화강암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입구에는 곱벚꽃 나무를 심고, 각종 희귀목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계곡물을 막아 인공폭장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호화스러운 풍경은 엽서로도 제작되었으며, 외지인들과 일본인들의 관광지, 인근학교의 소풍지가 되었다.

가옥의 구성은 ‘윗산정’, ‘가운데산정’, ‘아랫산정’을 중심으로 여러 부속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윗산정은 가옥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며 그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가운데산정은 이 가옥의 중심건물로 집주인인 이집천이 직접 쓴 ‘서벽정’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그 아래로 온실과 창고, 살림채가 있으며, 아랫산정인 사모정이 있다. 사모정의 좌측에 한 단 낮은 곳에는 연못과 정자로 꾸며진 일식 목욕탕채가 있으며, 중간대문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초호화 별장이었던 이집천가옥은 해방 이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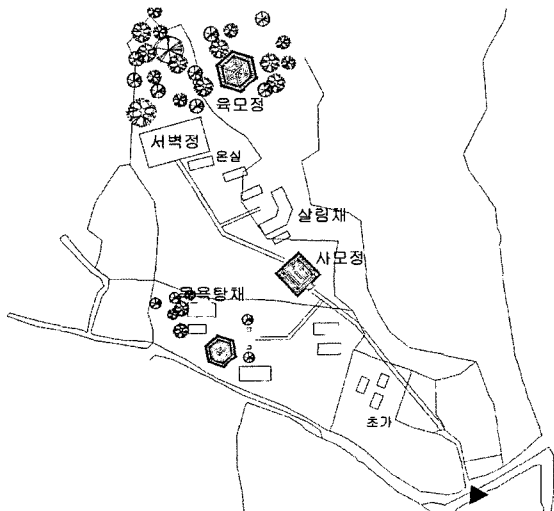


그림 8. 이집천가옥 배치도(추정)

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일부 매각되거나 모두 헐리었으며, 그 자리엔 ‘서벽정’ 비석과 대문기둥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매각되었던 살림채마저 허물어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IV. 부농주거의 건축특성

1. 배치와 공간구성

전통주거에서 배치와 공간구성 방식은 그 주거의 성격과 생활방식을 파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전라북도의 상류 주택은 일반적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자형 평면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으며, 채와 마당이 공간의 위계와 용도에 따라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함라마을 부농주거의 배치와 공간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배치

함라마을 부농주거의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 형태에 따라 병렬형과 분산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5. 이배원·김안균가옥의 영역구분

이배원가옥 영역구분	김안균가옥 영역구분

이배원·김안균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병렬형이고, 조해영·이집천가옥은 기능에 따라 분산 배치한 분산형이다. 이배원·김안균가옥은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안채와 사랑채를 대지 전면에 배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형성된 후면의 공간에는 농작물의 작업공간과 수장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곡물과 과실수 등을 심어 텃밭 등으로 이용하며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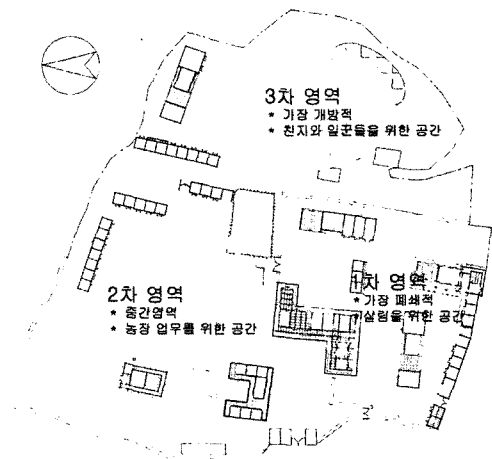


그림 9. 조해영가옥 영역구분

합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집천과 조해영가옥은 광대한 대지 범위 안에 각 채가 분산되어 배치되었으며 기능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였다. 특히 조해영가옥에서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각각 사적공간-반공적공간-공적공간으로 나누어 기능에 따라 개방의 정도를 달리 하였다. 이집천가옥은 이배원가옥의 별장으로 함라산 산기슭에 위치하며 대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 살림의 기능보다는 관광과 유흥을 위한 시설들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2) 평면구성

(1) 사랑채

조해영가옥 사랑채김안균가옥 사랑채 함라마을 부농주거의 사랑채 평면형은 一자형 몸체에 양쪽 전후로 실이 확장된 ㄴ자형 평면이다. 모두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한쪽엔 누마루, 한쪽엔 방으로 구성하였다. 이배원가옥의 사랑채는 좌측부터 아궁이와 두 칸의 방, 대청 그리고 건넌방이 이어지고 건넌방 앞에는 누마루가 돌출되어 있다. 조해영가옥 사랑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되었다. 각각 월방채, 큰사랑채, 침방채로 나뉘었으며 월방채는 누마루가 있는 부분이고, 큰사랑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몸채부분에 속하며, 침방채는 우측 날개부로 안채의 부속채로 사용되었다. 김안균가옥의 사랑채는 一자형 몸체에 좌측 후면에는 침방을 두었고 우측 전면엔 누마루를 두었다. 누마루에는 청풍루(淸風樓)라는 현관이 걸려있으며 세 칸 규모로써 앞서 지어진 가옥보다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몸채는 거실과 응접실을 따로 구분하였고 두 칸의 대청과 사랑방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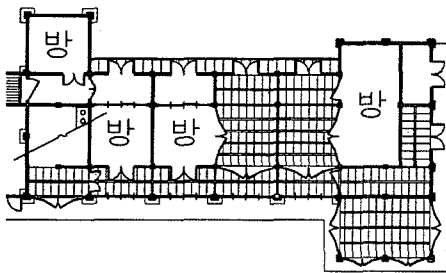


그림 10. 이배원가옥 사랑채

표 6. 조해영 · 김안균가옥 사랑채 평면

조해영가옥 사랑채	김안균가옥 사랑채

(2) 안채

함라마을 부농주거의 안채는 농장의 직접경영과 농업 규모의 확장으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 중 특히 발달된 것은 많은 식솔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부엌이다. 약 4칸 규모로 평면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엌 외에도 다락과 골방과 같은 수장공간이 발달하였고 부속실들이 따로 독립되어 하나의 채로 구성되었다. 이배원가옥에서는 밥청이 별도로 독립되어 안채의 측면에 위치하였고 김안균가옥 역시 밥청이 분리되어 부엌의 전면에 위치하였다. 조해영가옥에서는 안채 공간이 부족하자 사랑채의 한쪽 날개 부분을 안채 영역으로 활용하면서 침방채라고 별도로 공간을 구분하여 부른다. 그 외에도 실광, 찬광, 고방채 등 부엌 연계 시설이 안채 주위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동선을 연결하였다.

이배원가옥의 안채는 ㄱ자형으로 전면에 부엌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고 조해영가옥은 방-대청-방-부엌으로 一자형으로 구성하였다. 안채의 규모가 가장 큰 김안균가옥은 정면이 일자형으로 보이나 후면에 실이 부가된 역 ㄱ자형이다.

표 7. 안채 평면도

이배원가옥	조해영가옥 (추정)	김안균가옥

(3) 부속채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안채와 사랑채 외에도 여러 개의 부속채들을 건축하였다. 창고와 문간채, 행랑채 등이 있으며 김안균가옥에서는 안채 아래 식모가 기거하는 뜰 아래채를 건축하였다¹¹⁾. 특히 이러한 부속채는 가옥 내에 농장이 있는 조해영가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조해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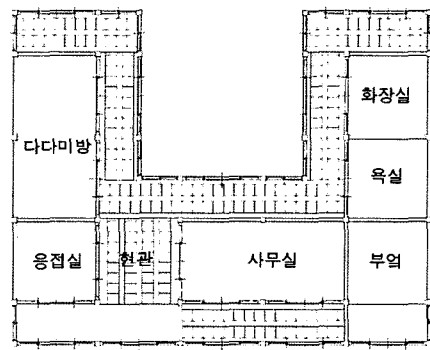


그림 11. 조해영가옥 양옥사랑 평면도(추정)

11) 두 칸의 대청과 두 칸의 방 그리고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보통의 안채의 규모와 비슷한 크기이다.

옥에서는 농장 업무에 필요한 부속채들을 두었는데 양옥 사랑, 농장사랑 등이 그것이다. 양옥사랑은 대문간채 좌측에 위치하며 주로 식객과 농감들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뿔자형의 평면형으로 전면에는 응접실과 현관, 그리고 사무실과 부엌을 두었으며, 후면에는 좌측에 다다미방, 우측엔 욕실과 화장실을 두었다. 농장사랑은 조용규의 아들인 조해영이 농장의 업무와 친구들을 접대할 때 사용하였던 곳이다. 농장사랑은 완전 일식형으로 한 칸의 마루와 한 칸의 방을 마루로 돌렸다. 이는 일본에서 수학하고 온 조해영의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외부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었으며, 관습보다는 대지와 생활의 특성에 맞게 건물을 배치하여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하였다.

2. 전통성과 근대성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개화기 근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 가옥은 근대 한옥의 변화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특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

1) 공간 구성의 변화와 채의 연결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一 자형의 지역적 특성을 고수하면서 실의 부가를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채와 마당의 분화, 위계의 구분 등 상류주택의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면서 기능에 따른 실의 분화, 개방성, 의장 등 근대적 사고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사랑채 마루 끝에 유리미서기문을 부설하여 마루를 내부공간화 하였고, 조해영가옥에서는 포치를 두어 진입을 위한 공간을 따로 구성하였다. 또한 김안균가옥은 침실과 거실을 분리하여 사용하였고 전면에 거실과 응접실을 두고 후면에 침실을 두면서 서양식의 평면구성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사랑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채는 사랑채보다 근대화에 보수적이었다.

함라마을의 부농주거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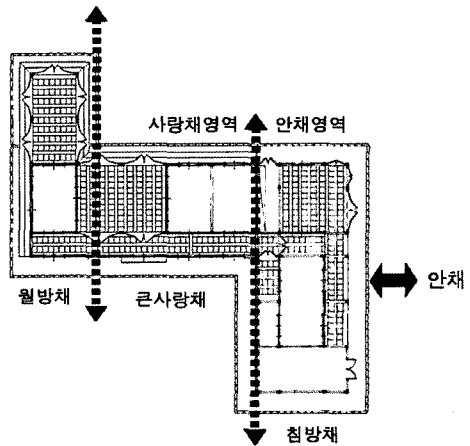


그림 12. 조해영가옥 사랑채 영역의 분화

와 사랑채의 연결방법에 있다.

이배원·김안균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내담으로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그러나 담의 후면에는 복도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채와 채 사이를 연결하였으며, 이는 계획에 있어 유교적 관습보다는 실생활의 편리함이 우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도는 먼저 지어진 이배원가옥의 것을 나중에 김안균가옥에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궁궐 혹은 궁집에서 사용된 형태로서 궁궐의 건축수법이 민가에 적용되면서 변형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결복도는 근대기 실생활 중심의 사상과 전통적인 남녀유별의 사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단위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였으며, 전통적 주거에 근대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난 자생적 근대화의 결과이다. 이와 방법은 달리하지만 유사한 예로 창덕궁의 연경당과 화성 정용채가옥, 외룡동 김씨가, 강화 김씨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조해영가옥에서는 사랑채의 일부가 안채의 부속채로 사용되면서 안채와의 연계가 보다 적극적이었다. 안채의 부속채인 침방채는 사랑채와 한 몸체를 이루면서 복도와 문을 통하여 그 영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처럼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유교적 관습을 유지하면서 근대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가옥에 적용하였으며 특히 채의 연결방법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함라마을 부농주거만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2) 근대 재료의 사용과 농·경제 시설의 설치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공간의 변화 외에도 근대기 유입된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하여 의장에 표현하였다. 특히 유리, 벽돌 등을 사용하였으며, 건축의 요소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네 가옥 모두 사랑채에 유리 미서기문을 부설하였으며, 기하학적인 창살과 색유리 등을 통하여 세련되게 장식하였다. 또한 벽돌을 이용하여 마루 밑 고막이로 사용하였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내담 구성에 사용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그 외에도 함석차양을 달

표 8. 이배원·김안균 가옥 평면도

가옥명	안채와 사랑채의 평면
이배원 가옥	
김안균 가옥	

표 9. 근대 재료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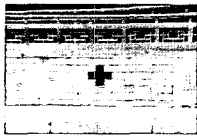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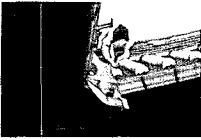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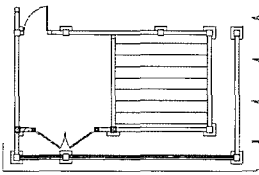

유리	벽돌	합석차양
		

표 10. 새방채 상가부분 평면과 모습

새방채 상가	새방채 상가 외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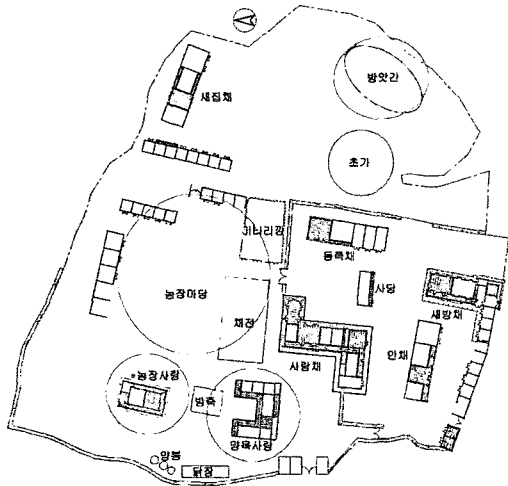


그림 13. 조해영가옥 농·경제 시설

아 처마선을 연장하였다.

이러한 재료의 사용 외에도 외국의 건축형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해영가옥의 농장사랑 건물은 완전한 일식건물이며, 이집천가옥은 일식형 목욕탕을 건축하였다. 이러한 신식재료의 사용은 대부분 사랑채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함라마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옥 내에 농장을 두어 그에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조해영가옥은 넓은 부지 안에 농장사무실, 방앗간 등을 두어 농장의 업무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농장 수확물의 판매를 위한 시설도 설치하였는데, 길가에 위치한 새방채의 한 부분을 상가를 위한 시설로 구성하였다. 외부를 목재널로 마감하여 그것을 떼어내면 바로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농장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에 따른 요구에 부응한 것이며, 관습의 유지보다는 생활 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3. 주거 간 상관성과 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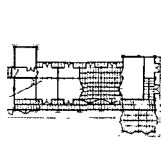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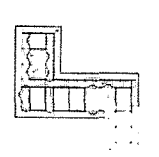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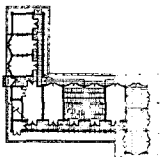



근대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한층 성숙된 고급건축술이 지방에 널리 확산·보급되었다. 전국으로 확산된 고급건축술은 공간의 다양성과 함께 형태의 세련미를 더욱 보편화 시키면서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게 되었다¹²⁾. 또한 18세기 후반 대궐 목수들이 일반사

가와 지방공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궁궐의 건축요소들이 널리 확산되었다.

함라마울의 부농주거들은 비슷한 시기에 부를 축적하여 인접한곳에 대규모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였다. 이들 주거는 부의 확산뿐만 아니라 부의 표상인 건축을 통하여 경쟁과 부의 과시 욕구를 표출하였다. 특히 조해영과 김안균가옥은 궁궐목수가 건축에 참여하였으며, 함라마울 부농주거 네 가옥 모두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였다고 한다¹³⁾. 이들은 상류주거를 모방하였고 사랑채를 중심으로 치장하며 경쟁적으로 부를 과시하였다.

특히 경제력을 상징하는 누마루¹⁴⁾를 통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배원가옥에서 김안균가옥으로 갈수록 점차 그 크기가 확대되어 나타난다. 또한 이집천가옥에서는 사랑채 누마루 역할을 하는 정자를 여러 개 두어 현시욕구를 극대화 하였고, 이것은 서로를 의식하는 경쟁적 관계 속에서 부의 과시적인 면모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장의 요소에 있어서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하였다. 공포는 초각을 하여 장식하였고, 난간은 조롱동자와 하엽받침 그리고 까치발 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구성하였다. 내·외부의 창호는 불발기와 아자문으로 구성하고 특히 외부의 창호는

표 11. 새 부농가옥의 누마루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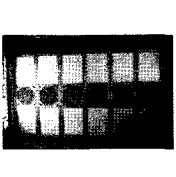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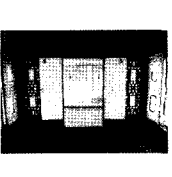
가옥명	이배원가옥 (1917)	조해영가옥 (1918)	김안균가옥 (1922)
사랑채 평면			
칸수	2칸×1칸	1칸×2칸	1칸×3칸
사랑채 누마루 사진			

13) 목재는 백두산, 석재는 압록강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14) 사랑채는 외부에서 진입할 때 처음으로 마주하는 실질적인 공간이며 가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누마루는 그 크기와 규모에 따라 사랑채 일면에 영향을 주며 사랑채의 권위와 부의 규모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12) 김동욱(2002),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p.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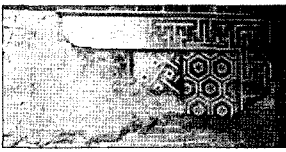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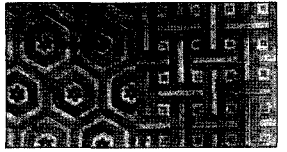


표 12. 의장 요소별 모습

	이배원 가옥	조해영 가옥	김안균 가옥
공포			
난간			
창호			

여러 기하학적인 무늬로 세련되게 장식하였다.

특히 궁궐목수가 건축에 참여하면서 궁궐의 건축수법들이 일부 도입되었다. 이는 이배원·조해영·김안균가옥의 벽돌 내담에서 잘 나타나는데 각각 내담 가운데에 태극무늬, 십장생, 기하학 무늬를 그려 넣었으며, 이러한 수법은 궁궐에 사용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표 13. 담장의 구성과 무늬





김안균가옥 담장무늬	자경전 담장무늬
	
이배원가옥 내담	조해영가옥 내담
	

또한 김안균가옥에서는 내담 가운데 있는 문을 벽돌을 이용하여 홍예를 들었으며, 사이에 무늬를 넣어 고도의 세련미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궁궐에서 사용하는 고급 건축술로써 왕족들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궁궐의 건축수법이 널리 확산된 근대기 이후에도 일반 사가에서 사용된 예는 보기 드문 것이다.

이처럼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궁궐의 건축요소들이 곳곳에 사용되면서 그 어떤 가옥들보다도 세련되었으며, 고도의 건축술을 사용하며 함라마을 부농주거만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4. 의장적 궁궐건축 요소

덕수궁 유현문	김안균가옥 단월문
	
운현궁 공포	조해영가옥 공포
	

V. 결 론

함라마을은 1917~1930년대에 건립된 근대부농주거 4채가 마을 입구에 이웃하여 자리하고 있어 높고 낮은 기와집의 지붕선과 토석담장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농가옥의 건축적 특성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배치와 공간 활용에 있어 기능적이며 효율적으로 구성하였다. 안채와 사랑채를 나란히 병렬형으로 배치하여 복도로 연결하였고, 전면배치로 인해 발생한 후면의 넓은 공간은 작업공간과 수장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대지의 흐름 또는 기능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며 배치공간에 대한 근대적 사고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였다. 평면의 형태로는 사랑채는 이집천가옥을 제외하고 모두 ㄴ자 형태이며 현관의 도입, 거실과 침실의 분리 등 생활의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을 하였고, 안채는 부속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후대로 갈수록 안채의 후면이 점차 발달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2. 함라마을의 부농주거는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대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근대 부농주거의 일반적 특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네 가옥 모두 유리, 벽돌 등 근대적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주거는 안채와 사랑채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사랑채의 일부가 안채의 부속채로 사용되는 등 유교적인 관습보다는 실생활의 요구에 맞추어 실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농장을 직접운영하면서 농·경제 시설을 주거 내에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농장운영에 따른 공간의 필요 욕구를 충족하였다.

3. 함라마을의 주거는 비슷한 시기에 부를 축적한 후 인접한 대지에 대규모의 저택을 건축하면서 화려한 치장, 사랑채 누마루의 확대, 입지적 상위 등을 통하여 부의 과시 욕구를 경쟁적으로 건축에 표현하였다. 또한 궁궐목수가 주택의 건축에 참여하면서 내담, 공포, 문 등의 궁궐 건축의 요소들을 곳곳에 사용하여 건축의 완성도를

높였다.

참 고 문 헌

1. 익산문화원(2006), 향토지, 익산문화원
2. 문세이(2002), 근대 부농가의 부역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론

3. 전라북도(2004),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전라북도
4. 조상철(1990), 향토지, 이리신광인쇄사
5. 홍승재(2005),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북편, 기문당
6. 함열현읍지(1895)

(接受: 2006. 8. 10)